

사흘간 '철통보안' 속 협상 ... 일요일 폭탄선언



광역단체장

이병완, 김부겸 의원 면담 "지역주의 극복하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8일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부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민주화와 산업화의 에너지를 통일 에너지로 만들어 나가자"고 협의했다.

이날 '제5회 2·28대구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 이사장은 "2·28대구정신과



이병완

5·18광주정신이 이제 하나가 돼야 한다. 이것이 국민대통합의 길이다"면서 "선결과제인 지역주의 극복을 통해 광주와 대구가 통일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주철현 변호사 '멈추지 않는 도전' 출판기념회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주철현 변호사(법무법인 주철현)는 지난 1일 '주철현 변호사의 삶과 꿈-멈추지 않는 도전'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김종현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인사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주철현

이 책에는 주 변호사의 여수 발전에 대한 자신의 특약 전략과 꿈 등이 담겨있다.

또 주 변호사는 이날 '토크! 토크! 저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오섭 광주시의원 '조오섭의 성장' 출판기념회

광주시의원 재선을 노리는 조오섭 광주시의원(북구2 우산동, 문흥1.2동)은 지난 1일 북구 문흥중앙초등학교에서 '조오섭의 성장'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출판기념회에는 강기정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고경석 한국임상양호회장, 이용섭 국회의원, 강문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태 광산구청장, 송광문 북구청장, 6



조오섭

4지방선거 예비출마자들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의 성장도 시민들과 함께 해 온 성장이지만, 앞으로 성장 도한 늘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김한길-안철수 '신당창당' 긴박했던 막전막후

김대표 제안 ... 4시간 '마라톤 협상'서 합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부 중앙운영위원장의 2일 신당 창당 선언은 사전에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폭탄선언'이었다.

'신당 창당 프로젝트'는 2일 베일을 벗기까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철통보안'에 붙여진 채 커비리에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와 와중에 여의도 한 호텔에서 최고위원들을 긴급히 불러 모았다. 이날은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국회개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시한이었다.

회의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무(無)공천 주장이 압도적이라 김 대표는 무공천 결정을 굳혔다고 한다. 이어 "이 정도 분위기라면 무공천을 동력 삼아 판을 키워 볼 수 있겠다"며 '추가 카드'를 꺼내들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근 열린 김 대표와 3선 의원 면담에서도 통합 주장이 북돋워져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안 위원장측 송호창 의원 등 양측간 대화 채널도 물밑에서 분주하게 가동됐다. 이런 통합론을 공개적으로 퍼왔던 우 최고위원이 송 의원에게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을 전하며 통합 의사를 타진했고, 송 의원은 "그것만 해결되면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밤 안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공천 결정을 전하며 "연대 또는 통합 논의를 하자"고 공식 제안했고, 이튿날인 1일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베석자 없이 안 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신당 창당에 대한 원론적 합의는 이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이 강봉균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참석차 전주출방을 방문, 서울을 비운 사이 구체적 문제를 놓고 양측 실무자간 협상은 계속 진행됐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오후 8시30분께 서울 모처에서 다시 마주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과 민병두 의원은, 안 위원장측에선 송호창 의원과 조광희 변호사 등이 배석했다. 2일 오전 0시40분

께 합의문이 완성되기까지 4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

안 위원장측은 민주당측에 "민주당이 새정치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보여줄지 분명히 담아달라"며 '활자'로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측은 "문자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이 "신뢰관계를 토대로 심층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합의문이 완성되자 김 대표는 이날 새벽 2시에 최고위원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며 오전 9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새정치연합측에도 오전 9시 공동위원장단 회의, 10시 팀장 회의가 소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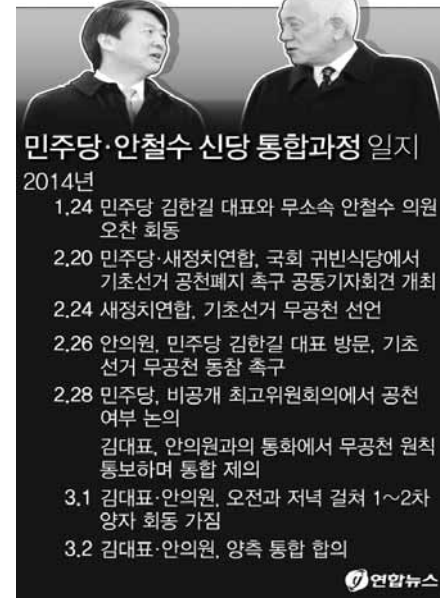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불법 대선개입 특검하라"

지 37명의 의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학영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까지 37명의 의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안철수 신당 통합과정 일지

2014년 1.24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오찬 회동

2.20 민주당-새정치연합,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초선거 공천매치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2.24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

2.26 안의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방문, 기초선거 무공천 동맹 촉구

2.28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여부 논의

김대표, 안의원과 통화에서 무공천 원칙 통보하며 통합 제의

3.1 김대표, 안의원, 오전과 저녁 걸쳐 1~2차 양자 회동 가짐

3.2 김대표, 안의원, 양측 통합 합의

분열과 통합의 야당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창당 선언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이합집산을 거듭해온 야당사(史)를 재연한 것이다.

야권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탄생한 당시 통일민주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놓고 내부 갈등을 벌인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 인사들의 탈당으로 설립 1년도 안 돼 분당 사태를 겪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탈당 인사들이 1987

1987년 DJ-YS 통합 ... 이합집산 거듭

년 11월 창당한 평화민주당은 재야운동가를 영입하면서 1991년 4월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같은 해 9월 통일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일명 '2파 민주당'과 합당해 민주당으로 재탄생했다.

다시 이런 세력지도가 바뀐 것은 14대 대선에서 패한 뒤 정계 은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7월 복귀와 동시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부터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65명이 참여하면서 제1야당으로 출범한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직후인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으로 확대 개편됐다.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지만,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과 개혁국민정당, 한나라당 내 개혁성장 세력이 헤쳐 모여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탈당과 80명, 중도합당민주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주축으로 한 한나라당 탈당세력,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지만 결국 대선에서 참패했다.

2008년 2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민주당이 같은 해 7월 민주당으로 개명했고, 2011년 12월 시민통합당과 합당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강경환 광주세울링협회장 '민들레...' 출판기념회

광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강경환 광주시세울링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송정소방교회에서 저서 '민들레는 밟힐수록 씨를 멀리 날린다'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은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사가 된 과정과 송정중 교장 재직시 세울링 팀을 창단한 일화 등이 담겼다. 순천 출신인 강 신임회장은 지난 1969년 안도 청산중 교사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



강경환

청 교육연구사, 연구관, 송정중 교장 등을 역임하며 40여년간 교육계에 종사했다.

강 회장은 송정중 교장 재임시절 체육교과를 담당하며 '민들레'라는 별칭을 붙여 학생들을 지도했다. '민들레는 밟힐수록 씨를 멀리 날린다'는 책의 제목은 이 별칭에서 유래했다. 강 회장은 "이 책은 나의 교육철학과 교육현장의 생생한 일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대지/임야/전답,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자동차, 중기, 기타.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items for auction.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items for auction.